



주로 일상 생활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영어 의사능력을 테스트하는 토익(TOEIC) 시험은 취업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수과목이 된 지 오래다.



듣기와 쓰기 200문항이 출제되는 토익시험의 만점은 990점. 900점을 넘으면 영어의 일정 수준을 넘은 것으로 평가한다.

광주 민병철이화원 강사인 김윤식(35)씨가 바로 주인공이다. 지난 2002년 토익 강사 생활을 시작한 뒤 2003년 4월 처음으로 만점을 받았고, 이후 지난해 8월까지 3년여 동안 19번의 만점을 기록했다.

40여 차례의 시험에서 19번의 만점을 받은 그는 토익에 대해서는 '프로'다. 김씨는 토익의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해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매일 토익 시험을 보고 있다.

김씨는 "토익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우선 본인에게 익숙한 문법책을 두 번 정도 학습하는 것이 좋다"며 "사진은 종이사진을 이용하되 밑줄을 그으면서 보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 토익 19번 만점 김윤식 강사가 말하는 고득점 비결



영어 듣기·받아쓰기 날마다 연습하라 반복학습이王道다

토익은 문제은행식 출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많이 풀어보는 것이 고득점에 유리하다. 800~900점 이상의 고득점을 원한다면 독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파트1 한 장의 사진을 제시하고 알맞는 설명을 고르는 듣기 문제 10문항이 나온다. 지난해 5월 토익이 바뀌면서 문항수가 20문항에서 10문항으로 줄었다.

# 파트2 한 질문당 3개의 보기 중 답 하나를 찾는 방식으로 30문항이 출제

영자신문 정독 독해력 키우고 사전 밑줄 그으며 단어 익혀야

된다. where, when, who 등 의문사만 듣고도 답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문사를 놓치지 않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파트3 한 대화를 듣고 한 문제씩 풀었던 형식에서 조금 더 길어진 하나의 대화를 듣고 세 문제씩 푸는 것으로 바뀌었다.

# 파트4 세 문항씩 나오는 것은 파트3과 비슷한 형태지만 대화가 아닌 지문을 읽어준다.

를 읽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4까지 모두 끝나면 문제지에 체크했던 답을 답안지에 옮겨 적는 것을 잊어서 안 된다.

# 파트5-6 파트5는 뉴 토익으로 바뀌면서 어휘문제의 비중이 커졌다. 700점대 후반의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10분 내에 풀었던, 네 개의 밑줄 그어진 부분 중 틀린 것을 고르는 20문항의 파트6은 기존의 모습에서 완전히 탈바꿈, 독해처럼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진 지문에 파트5처럼 3개의 빈칸을 주며 총 12문제를 푸는 것으로 바뀌었다.

공안이 있는 문항의 의미만 파악하여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이 파트의 핵심은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다. 단문 이해 능력(파트5)에 더해 문맥 이해 능력을 측정한다.

# 파트7 파트6이 12문제로 줄면서 독해 문제가 나오는 파트7은 8문제가 추가됐다. 기존에 없었던 한 지문에 5문항을 푸는 형태가 새로 등장했으며, 후반의 181번부터 200번 문제들은 두 개의 지문들을 번갈아 보며 5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화안내 Happy Time

메가박스 Megabox Day

조폭마누라3

엔터시네마

올드스다이어리

컬럼버스시네마

중천

대인부동산컨설팅

금보부동산컨설팅

금천공인중개사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현대공인중개사

법원경매